‘저산소마스크’ 고지대 적응 훈련

허정무號, 해발 1753m서 치르는 아르헨전 대비

월드컵 축구대회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태극전사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지대 환경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산소 마스크를 활용한다.

축구대표팀 허정무 감독은 최근 대한축구협회 기술교육국에 산소량을 줄여 고지대 적응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소 마스크 구입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소 마스크는 흔히 더 산소 공급을 늘리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지만 대표팀은 산소 공급량을 줄이는데 사용한다.

선수들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뒤 필터 밸브로 산소량을 적게 조절하면 쉬면서도 혈액 속의 적혈구 수치를 증가시켜 고지대와 비슷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의무분과위원회는 선수들이 하루 1시간씩 2주 정도 착용하면 고지대 적응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기술교육국에 전달했다.

대표팀은 다음 달 10일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모여 월드컵을 대비한 막바지 담금질에 들어가는 태극전사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나눠줄 예정이다.

해발 1400m의 블룸폰테인에서 카메룬과 E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는 일본 대표팀과 해발 1177m의 루스텐버그에서 미국과 C조 1차전을 치르는 잉글랜드 대표팀도 산소 마스크를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 대표팀은 해발 1233m에 있는 루스텐버그의 헌터스레스트를 숙소로 정했고 6월17일 아르헨티나와 해발 1753m의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B조 2차전을 벌인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산소 마스크를 구입하면 전지훈련지인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로 이동하기 전까지 국내와 한일전이 치러지는 일본에서 선수들이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훈련 때보다는 휴식 시간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언제부터, 얼마 동안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청용, 볼턴 팬 선정 ‘올해의 선수 2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적인 데뷔 첫해를 보내고 있는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이청용(22·볼턴)이 구단 팬이 뽑는 올해의 선수에서 2위에 올랐다.

29일(이하 한국시각) 영국 볼턴 지역신문 볼턴뉴스에 따르면 볼턴 서포터스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에 공격수 케빈 데이비스가 뽑혔고, 신입생 이청용이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미드필더 파브리스 무암바다.

주장 데이비스는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상”이라고 기뻐하면서 “이청용과 무암바도 아주 굉장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무암바는 팀을 위해 열심히 뛰어줬고, 이청용은 데뷔 첫 시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놀랄만한 활약을 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K-리그 FC서울을 떠나 볼턴에 입단해 이번 시즌 5골8도움을 올리며 소속팀의 프리미어리그 잔류에 큰 힘을 보탠 이청용은 최근 영국 일간신문 더 타임스가 발표한 ‘올 시즌 성공적인 영입 사례’에서도 16위에 오르는 등 구단 안팎에서 기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청용은 다음 달 1일 토트넘 홋스퍼와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원정경기를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인테르 밀란, 바르샤 제치고 결승행

챔스리그…45년만에 정상 도전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강호 인테르 밀란이 FC 바르셀로나(스페인)의 2회 연속 우승 도전을 좌절시키고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다.

인테르 밀란은 29일(한국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누 캄프에서 열린 지난 대회 우승팀 바르셀로나와 원정 2차전에서 0-1로 졌다. 그러나 21일 홈 경기에서 3-1로 이겼던 인테르 밀란은 1·2차전 합계 3-2로 앞서 결승행 티켓을 얻었다.

이로써 올해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인테르 밀란이 5월 23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단판 승부로 벌이게 됐다.

지난 2003～2004시즌 FC포르투(포르투갈) 지휘봉을 잡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지휘했던 조제 무리뉴 인테르 밀란 감독은 6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1차전 2점차 패배에 발목을 잡히면서 2회 연속 우승 꿈을 접어야 했다.

인테르 밀란은 지난 1965년 이후 45년 만에 이 대회 정상에 도전하게 됐다. 인테르 밀란은 1964년과 1965년 정상에 올랐고 1967년과 1972년에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인테르 밀란과 결승에서 만나는 바이에른 뮌헨은 2001년 이후 9년 만에 다시 유럽 챔피언스리그 정상을 꿈꾸고 있다.

/연합뉴스

‘미녀새’ 이신바예바 유스올림픽 홍보대사

‘장대높이뛰기 지존’ 옐레나 이신바예바(28·러시아)가 오는 8월14～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회 유스올림픽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이신바예바가 이번 여름 싱가포르를 찾는 3600여명의 청소년 선수들에게 진정한 역할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스올림픽 홈페이지가 29일 전했다.

이신바예바는 “휴식 기간에 매우 흥미로운 기회를 얻었다. 싱가포르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은선 하산…‘14좌 완등’ 인정 최종 시험

홀리 여사와 인터뷰에 달렸다

〈고봉 등반인증 국제 최고 권위자〉

지난해 5월 등정 성공한 ‘칸첸중가’ 의혹 해명해야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오은선(44·블랙야크) 대장이 안나푸르나(8091m)에서 하산하면서 13년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오 대장에게는 8000m가 넘는 안나푸르나만큼 힘든 시험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다.

히말라야 고봉 등정에 관한 기록을 집계해온 최고의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홀리(86·미국) 여사와 만나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칸첸중가(8586m) 등정을 확인받는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오 대장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여성 최초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자로 역사에 남게 된다.

29일 하산한 오 대장은 베이스캠프에서 이틀 가량 쉬고 나서 다음 달 초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오 대장은 안나푸르나 등정을 인정받고자 네팔관광청을 방문하고 홀리 여사와도 면담한다.

히말라야 고봉이 있는 네팔과 파키스탄 관광청에 정상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하고 인터뷰하면 등정을 인정받는다.

1923년 미국 시카고 출생인 홀리 여사는 1960년 타임지 기자로 네팔 땅을 처음 밟았다. 히말라야에 도전하는 등반대를 인터뷰하고 등반 기록을 50년 동안 차곡차곡 정리해오면서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히말라야 최고 권위자가 됐다.

오 대장은 홀리 여사와 만나 이번에 오른 안나푸르나 등정을 설명할 뿐 아니라 14좌 완등 경쟁자였던 에두르네 파사반(36·스페인)이 제기한 오 대장의 칸첸중가 등정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파사반은 오 대장의 칸첸중가 정상 사진이 의심스러우며 당시 오 대장의 셰르파들도 ‘오 대장이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고 말하며 공격하고 있다.

홀리 여사는 파사반으로부터 이런 주장을 듣고는 자신이 정리하는 히말라야 등정 기록 사이트인 ‘히말라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오 대장의 칸첸중가 등정 기록을 ‘논란 중(disputed)’으로 바꾸었다.

/연합뉴스

‘철녀’의 귀환 여성 세계최초 8000미터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오은선(왼쪽) 대장이 29일 오후 3시45분(한국시각) 베이스 캠프(4,200m)로 복귀하며 환영나온 원정대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